



그림 · 문병성

박영재 교수의 첨단 과학과 불교 ②



박사학위와 인가

필자는 지속적인 선 수행 결과 1987년 '무문관(無門關)'을 투과하고 종달 이희의 노사로부터 인가(印可)를 받았다. 인가란 이제 스승의 도를 없이 혼자서도 제자를 지도할 수 있고 독자적인 수행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뜻으로 결코 석가 세존과 같은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했다는 뜻은 아니다. 과학의 세계에서도 박사학위 후 세계적인 학자들의 지도 아래 '박사후 과정'을 밟게 된다. 이 과정은 학문에 대한 탐구심을 위해 꼭 필요하며 수행의 세계도 이와 비슷하다. 즉 수행자들이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오후(悟後) 수행'이라는 과정이 있어 자신의 깨달은 바를 여러 노사들께 입참(入參)해 체득한 바를 확실하게 다지는 일이 필요하다. 필자의 경우 화계사 조실로 계신 승산(崇山) 스님의 배려로 1991년과 1997년 두 차례 독참(獨參) 입실 점검을 받으며 참선 지도법

사로서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었다. 덧붙여 필자는 1989년 9월부터 모교인 서강대학교로 돌아와 박사과정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연구과제는 지도교수가 주지만, 동료 교수 및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좋은 연구성과(20년 동안 SCI 등재 국외학술지에 90편 게재 및 박사학위 6명 배출)를 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종달 노사께서 입적하신 1990년 6월 7일 이후 선도회 제2대 지도법사가 되어 선도회 문화생들의 입실 지도를 해오며 지금까지 6명의 법사를 배출해오고 있다. 사실, 오늘날 첨단과학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창조의 연구, 공중연구(空空)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구성원끼리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원 각자의 인격적인 수양도 매우 필요로 하는 시대인데 필

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각 구성원들은 들이 아니라 는 불이(不二) 사상은 온몸으로 체득해 주는 (선불교 수행법은 매우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이제 필자의 (선불교 수행) 모임인 '선도회(禪道會)'의 법사로서 체득한 바와 물리학 교수로서 학생들의 교육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자 부유층은 노예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여가가 생기자 자연스럽게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학자들이 출현하게 되고 순수학문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자연학(physical)은 자연(physics)을 연구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 오늘날 '물리학(physics)'이라 불리는 이 학문 분야는 그 여원만 살펴더라도 자연학이 발전하여 형성된

중세 카톨릭 "모든 학문은 신학의 시녀" 뉴턴이후 과학·종교 독자적 영역 구축

및 연구 지도를 해오면서 느낀 바를 바탕으로 '불교(종교)와 과학의 상호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선불교의 여러 가지 측면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다루고자 한다. 우선 과학은 서양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현대적인 과학이 종교(기독교)와 어떻게 첫 만남을 시 작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분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리스 문명을 계승한 로마 시대에는 순수과학보다는 세계 정복과 더불어 필요에 의해 실용적인 토목과 건축 분야가 발달하게 되었기 때문에 4원소설이나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포함한 그리스의 자연과학은 별 검증 없이 기독교 신학체계에 자연스럽게 흡수·통합, 중세 기독교 시대까지 신학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유지된다. 특히 중세에는 수도원적인 금욕주의와 물질의 가치를 무시

과학·종교 우호적 만남
고대 그리스는 해상무역을 통해

하는 풍토로 자연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하였으며, 심지어 가톨릭의 보나벤투라 성인은 신학을 제외한 모든 학문의 목적은 '성서 해석에 도움을 주어 신앙을 공고히 함으로써 하느님을 영광되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 다른 학문을 '신학의 하녀'라고 규정짓기까지 하였다. 그 이후 16세기가 되면서 신학적 반대에 부딪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비록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브라헤, 케플러, 갈릴레이 등의 혁신적인 탐구 노력을 바탕으로, 뉴턴이 지구가 태양 둘레를 타원궤도를 그리며 공전하고 있다는 관측사실을 정량적으로 나타냈다. 뉴턴이 역학에 관한 운동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을 완성함으로써 기독교에서 주장해오던 천동설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종교와 과학은 서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가는 동시에 서로 상호 영향을 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갈릴레이의 경우, 지동설을 주장할 때 그 근거로 망원경을 이용한 관측 결과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자유롭게 성서를 해석'함으로써 가톨릭의 강한 반발을 일으킨 반면, 영국은 17세기에는 '하느님이 주신 자신의 재능을 과학적 탐구 위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 생각한 청교도들에 의해 종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과학이 장려되고 있었기에 뉴턴을 배출할 수 있었다.

박영재/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yipark@ccs.sogang.ac.kr



분한 마음 일면 원한도...

러시아 홀리건의 난동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수행의 덕이다. 원망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내는 사람 속에서도 마음을 고요히 해 남들이 모두 악행한다고 하더라도 기담하지 말라. 강한 자 앞에서 참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고, 자기와 같은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은 싸우기 싫어서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이 진정한 참음이다. <잡보장경>

부처님께서서는 항상 마음을 고요히 해 성냄을 자제하라고 가르치셨다. 이런 부처님 말씀을 항상 가슴에 되새겼다면 러시아 홀리건의 난동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10일 일본의 경기에서 러시아팀의 패배에 흥분한 수천여명의 러시아 팬들이 모스크바 시내 중심가에서 난동을 벌여 경찰관을 포함해 두 명이 죽고 71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대형사고가 있었다. 특히 러시아 홀리건들은 시내를 물러다니며 일본인으로 보이는 동양계를 무차별 습격해 차이크프스키 음악공무루에 참가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온 음악가와 유학생 등 5명의 일본인이 다쳤다. 또 홀리건 일부는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관의 승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알렉세이 블린 러시아 내각 사무차장은 "이번 난동은 수백만명의 러시아 축구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격분해 이번 난동은 러시아는 물론 세계 축구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 앞으로 남은 월드컵을 지켜보는 관중들도 경기결과에 승복할 줄 알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이 분한 마음을 일으키면 원한을 맺는다. 사람이 분한 마음을 일으켜 원한을 맺으면 그는 스승을 공경하지 않고 법을 보지 못하며 계를 지키지도 않는다. 또 그가 싸움을 일으키면 결국 천상과 인간에 지극히 심한 고통과 재앙을 일으키게 된다. <중일야참경>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대한불교 조계종이 중단명칭과 종무기구를 비롯한 불교용어의 영문표기법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총 6개 용어 중 주요한 것들을 소개한다. (→ 오른쪽이 바른 표기법)

- 조계종 Korean Buddhist Chogey Order →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 (참)선 Seon(zen) → Seon meditation
- 스님 Monk → Monk / Buddhist Monk
- 선사 Seon Master
- 방장(스님) Spiritual Patriarch
- 주지스님 Chief → Abbot
- 행자 Novice → Apprentice
- 중생 Sentient being
- 예불(의식) Buddhist Service → Buddhist Ceremonial Service
- 오계 The Five Precepts
- 삼귀의 Tree Refugees → The Tree Refugees
- 사홍서원 The Four Great Vows
- 발우공양 Buddhist Meal with Traditional Bowls
- 포교당 Buddhist Center → Dharma Instruction Center/ Buddhist Center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④

텅 빈 것이 진실하다

삼세 시방에 부처와 조사가 나타나 는 것은 다만 법(法)을 구해서일 뿐이며, 지금 도를 배우는 여러분도 다만 법을 구할 뿐이다. 법을 얻어야 비로소 끝마치게 되고, 법을 얻지 못한다면 여전히 5악도를 윤회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법인가? 법이란 마음법(心法)이다. 마음법은 모양이 없어서 시방세계를 관통하고 눈앞에 드러나 작용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이를과 말로써 알아차리고 문자 가운데에서 구하며, 뜻으로 불법을 헤아리니, 하늘과 땅 만물이 어그러지는 것이다. 마음법은 범(凡)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성(聖)에도 들어갈 수 있으며, 깨끗함에도 들어갈 수 있고 더러움에도 들어갈 수 있으며, 진(眞)에도 들어갈 수 있고 속(俗)에도 들어갈 수 있다. 요컨대 그대가 진속범성(眞俗凡聖)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진속범성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진속범성이 이 사람에게 이름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 한다. 그러므로 법을 불법이라고 한다. 이 불법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사물을 가리켜 마음이라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사물이

사물은 마음 위에서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사라진다. 그러나 마음은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사물의 변화를 통하여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마음을 파악할 수가 있다. 변화하

실이고 근원임을 확실하게 된다. 변화하는 것은 모양이 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는 것은 모양이 없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다. 즉 모양 있는 것은 무상(無常)하게 변화하는 것이요, 모양 없는 것은 변화하

사물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골 마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가운데 마음이 드러나 있다는 말이다. 물론 마음이 있고 그 밖에 따로 사물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사물은 마음 위에서 마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해야 한다.

는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다.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이 별개로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변화하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마음에 계합하여 스스로 체현한 상황에서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 더욱 진

대하여 말할 수가 없다. 모양은 지각기관을 통해서든 내면의 느낌을 통해서든 생각을 통해서든 알려진다. 즉 알려지는 것은 모두 모양이 있으며, 모두 무상하게 변화하는 것이다. 매 순간 순간 변화하며 흘러가는

침구학 단기 연수안내

국내최초 도입된 중국의 평형침구의학 강의 새로 창안된 남정 사상 침구학 강의 한의사, 전통침구사 침구학에 관심 있으신분 대환영합니다. 질병을 치료코저 하시는 분도 연락 바랍니다. 본원장은 ○대학에 침구학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대체의학 연구원장 대체의학박사

연락전화 02)3159-8886
3158-6977
011) 722-6977

특히, 수행하시면서 수 피로를 느끼실 때 복용하시면 반드시 효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물장어 엑기스

어린이나 노약자는 물론 허약하신분들 특히, 관절염 골다공증 환자분들에게 좋습니다.

민물장어는 인체에 필요한 필수지방산 불포화지방산 덩어리이면서 항암효과 피부미용 노화방지 시력보호에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 A, D, E의 보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동충하초는 천식 악성 간염 위염 폐결핵 만성결핵 각종암에 항암 효과가 탁월하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만성피로 노화방지 빈혈 허약체질에 약리효과가 있습니다.

「정진하는 맘으로 6시간이상 정성껏 다렸습니다」
- 지운거사 -

※ 택배도 가능(1개월분 이상)

- 민물장어 6kg + 동충하초 120,000원(택배비 포함)
- 민물장어 6kg + 십진대보탕 150,000원(택배비 포함)

동천민물장어
연락처 051)643-8592 / 019)515-7239

속편안한세상 부건속편차(茶)

위 속편 차는 약 6-7년전 산에서 수행하던 선도인(仙道人)의 비법으로 개발된 신비한 효험이 있는 차입니다. 산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병이 나면 스스로 약초를 찾아서 질병을 다스리며 때로는 산에서 만난 속가의 사람들에게 약초나 약을 보시하여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편안 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 차는 수행하는 도인이 깊은 명상에서 찾은 비법인 만큼 그 효능은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입니다.

- 산에서 산인(山人)이 개발한 차입니다.
- 일주일만 드셔도 속이 편안해집니다.
- 우리 산에서 자생하는 약초로 만들어서 효능도 좋습니다.
- 속편 차는 속이 불편하신 분만 드시라고 만들었습니다.
- 약 2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속편 차를 드신 후 실컷한다고 하십니다.
- 한번 드시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 만드는 비법이 특허출원 중입니다. [특허출원 번호 : 10-2002-0018148]
- 연락 주시면 소상이 알려 드립니다.

합자회사 부건식품
전화 : 041-674-6955, 6966 / 017-724-3355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 내릴 때 무릎이 쉬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냉체 산후바람 냉 습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한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응(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